

쉽고 통쾌했던 '조들호'가 그립다

KBS2 '조들호 2' 복잡하고 음울한 전개에 곁도는 코미디 인기응변식 시즌제 한계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쾌·상쾌·통쾌하게 사건을 해결해내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시청자는 대리만족했다.

그러나 3년 만에 돌아온 조들호는 쉽지도 통쾌하지도 못했다. 조들호의 트라우마와 얽힌 스토리는 복잡하고 무겁다. 연출도 코믹함과 진지함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무뎠다.

◇ 시즌1과 너무 다른 화법과 작법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즌1은 법정극을 표방한 것치고는 상당히 가볍고 유치했다. 그러나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변호인은 없는 현실을 배경으로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 몸 다 바치는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시청자 마음을 흠뻑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의 박신양.

조들호와 이자경 투샷은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박신양의 고군분투는 여전히 이목을 끌지만 오락가락하는 극 분위기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다. 고현정 역시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만나 좀처럼 공감받지 못한다. 시청률은 5~6%대를 기록 중이다.

◇ 시즌제 드라마 안착, 아직 먼 길인가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은 비록 속편 방영에 3년이나 걸리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시즌제 드라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드라마 제작 편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즌제 드라마는 찾기 어렵다. 너도 나도 스타 캐스팅과 막대한 자본력에 기댄

대작 한 방으로 경쟁하려는 탓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서민 변호사의 속 시원한 정의구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캐릭터를 지닌 좋은 기획이다. 덕분에 속도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즌마다 결이 이렇게 달라서는 또 다른 시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스토리와 전개 방식의 변주도 어디까지나 첫 시즌에 시청자가 호응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도 가성비 좋은 시즌제 방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비롯해 첫발을 떤 작품들이 입지를 잘 다져야 한다. 초반 전개가 아쉬웠던 '동네변호사 조들호2'가 본래 매력력을 되찾아 순항하기를 손꼽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연협뉴스

'SKY캐슬' 22% 거침 없는 질주 '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위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짝퉁이

JTBC 금토극 'SKY 캐슬' (사진)이 결국 역대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방송한 이 드라마 18회 시청률은 전국 22.316%(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종전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기록은 tvN '도깨비' (2016~2017)가 보유한 20.5%였다. 2017년 최고의 콘텐츠로 기록된 '도깨비'는 당해 정초인 1월 21일 시청률 20%를 넘기며 국내 케이블 방송 22년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리고 약 2년 후 'SKY 캐슬' 이비슷한 시기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날 방송에서는 강준상(정준호 분)과 한서진(염정아), 김주영(김서형)의 삼자대면이 그려졌다.

총 20부작으로 제작된 'SKY 캐슬'은 판타지 로맨스인 '도깨비'와 결이 다른 블랙코미디이지만,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도 그에 뒤지지 않는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다. 1회 시청률 1.7%로 시작해 입소문만으로 22%대까지 폭등한 시청률이 이 현상을 증명한다.

높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회자하는 강도와 빈도도 '역대급'이다. 초반 상류층 입시 전쟁 풍자로 눈길을 끈 뒤 주요 인물들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푸는 추리 요소도 더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게 유효한 전략이었다.

심지어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시청자끼리 추측한 내용이 '스포일러'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급기야는 우려하던 대본 유출 사태까지 벌어져 제작진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SKY 캐슬'이 남은 3회 방송 기간 자체 최고 성적을 얼마나 더 갱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연협뉴스

병역기피 영원한 '주홍글씨' ... 제대하면 승승장구

연예계 병역인식 확 달라졌軍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 복귀를 시도하며 연예인 병역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적발되면 연예 활동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유승준 사태'로 특유의 학습능력 덕분에 군대를 다녀오면 오히려 이미지가 개선되고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며 뜨겁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단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두 아이와 함께 멋있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사죄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내에서 12년 만에 새 앨범 '어나더 데이' (Another day)를 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싸이, 송승환, 장혁 등도 과거 비리에 연루됐지만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대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제대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스타들도 있다.

송중기는 전역 후 출연한 '태양의 후예'를 통해 톱스타로 도약했다. 심지어



유승준

현빈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를 연기하면서 군 복무 경험을 심본 살렸다.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 절정일 때 해병대에 입대해 스포츠라이트를 받았고, 배우 윤시윤도 해병대를 선택했다.

이처럼 달라진 분위기에 새해 복두부터 아이돌 입대 러시가 이어진다. 비투비 이창섭이 지난 14일 입대했으며 B1A4 신우가 오는 22일 입대한다. 래퍼 한해, 비투비 이민혁은 다음 달 예정이며 2AM 정진운은 3월 군대에 간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Program Name, Time, and Notes. Includes programs like KBS1 News, KBS2 Morning News, MBC News, and SBS programs.

EBS1

Table with 2 columns: Time and Program Name. Includes programs like World News, EBS News, and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1월 21일(음 12월 16일 戊午)

Table with 2 columns: Day (戊午) and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Contains horoscope text for each sign, including advice and lucky/unlucky numbers.